

충남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거점 조성 방안

김경태 | 충남발전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장

주5일 근무제 정착과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레저지향의 경향이 증대되면서 해양관광에 대한 수요가 내륙관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의 경우 계절적으로 7-8월 하절기 집중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보령, 당진을 중심으로 관광객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태안의 경우 유류피해 이후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충남 서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절별, 지역별 집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계절 관광지를 위한 거점지역 육성과 지역별 차별화된 기능 배분 및 지역별 연계를 통한 관광매력성 증대가 필요하다. 또한 해수욕장 중심의 해양관광에 치중되어 국제경쟁력을 갖춘 해양관광 기반시설이 부족하며, 해양관광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미흡한 상황으로 충남이 서해안 해양관광 거점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충남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해양관광 매력물을 조성해야 한다.

따라서 충남의 특성에 가장 부합되고 충남에서만 접할 수 있는 차별성 높은 특화된 해양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거점을 조성하여 충남경제 활성화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충남 해양관광자원 현황

충남 해양관광자원으로는 해안 및 도서의 경우 2012년 기준 해안선이 1,087.19km(육지부 731.63km, 도서부 346.36km)이고 도서는 271개로 유인도가 32개, 무인도가 239개로 나타났으며, 자연공원으로는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가로림만에서 안면도에 이르는 면적 377.019km²에 이르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이 있으며, 해수욕장은 2012년 기준 전체 51개소(태안군 32개, 보령시 17개, 당진시 1개소, 서천군 1개소)가 있고 총 길이는 61.04km이고 총면적은 14,294,781km², 백사장이 11,799,000m²로 한해 관광객수는 23,383,866명으로 서해안 6개 시군 방문객의 약 50%에 이르는 수로 충남 해양관광의 주요 형태가 하절기 해수욕장 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해안권에 위치한 지역은 수려한 섬들이 군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다수의 해양관광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기암괴석 등 해안경관지의 경우 보령시의 도서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일출, 일몰 관광지가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간척된 지역의 특성상 철새도래지도 서산시, 홍성군, 서천군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재는 총 226개로 충남 전체의 2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휴양림이 3개(안면도, 성주산, 용봉산)가 있으며, 축제가 2013년 기준 51건으로 전통문화와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축제가 4월부터 10월 까지 집중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그리고 어촌체험마을이 보령시 2곳, 서천군 1군, 태안군 5곳이 있으며, 주요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마을공동 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 기타 S/W 관련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관광기반시설의 경우 관광숙박시설, 유원시설, 관광편의시설은 양호한 편이나 외국인 관광객과 관련한 관광사업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정관광지로는 지정관광지가 12곳(보령시 3곳, 서산시 1곳, 당진시 3곳, 서천군 2곳, 홍성군 1곳, 태안군 2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관광특구로는 보령 해수욕장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다.

충남 해양관광 관련 계획 및 사업 검토

충청남도의 해양관광과 관련된 계획은 먼저 충남 서해안권 종합개발계획(1988)으로 서해안 해양관광과 관련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으며 수도권과 중부권을 포함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상의 여가공간으로서 개발보다는 보전이라는 지역적 이미지를 지녀왔다고 정의내리고 있으며, 또한 서해안지역의 잠재력은 중국대륙과의 교통 확대, 서해안 고속도로의 건설, 아산항 및 장항항의 개발로 인한 개발 여건 변화, 수도권의 거대한 소비시장과 스피드 오버효과로 발전잠재력을 갖는 지역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2005)으로 정부가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와 충남, 전북, 전남 등 서해안권 4개 시·도 40개 시·군의 관광지 개발계획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주요 내용은 안면도(4계절 관광·휴양지구)와 원산도(섬 거점 및 대천-안면도 중간기착지), 대천지구(해양레포츠 및 경관위주 관광지)를 중심거점으로 개발하면서 태안관광테저도시와 만리포해수욕장, 홍성 남당지구 등을 연계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총투자비 4조 967억원, 총 사업기간 2008년~2017년(10년간)의 서해안권 광역관광 개발계획(2006)이 법정계획으로 수립되었으며, 이중 충남의 투자비는 2조 1,790억원으로 전체 53.2%로 주요 사업은 거점 사업으로 대천, 원산도와 안면도의 파인코스트사업, 연계사업으로 삼교호관광지, 만리포해수욕장, 남당지구, 춘장대해수욕장 등이 계획되었으며, 전략사업별 투자계획이 수립되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계획에서의 해양관광 관련 계획은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08, 2011)으로 서해안권에 있어서는 환황해권 교역 전진기지, 해양휴양·관광의 메카로서 항만기능 확충 및 거점육성, 서해안 국제해양관광벨트, 화력발전소 온배수 활용 특화단지, 갯벌 양식 클러스터, 항공산업 연구단지, 연안관리 등이 주요 이슈 및 사업으로 부각되면서 환황해권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좀 더 구체화하였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분야-사회적 경제 등이 전면부에 부각되게 된다. 주요 사업은 서해안 국제해양관광벨트-천수만관광휴양벨트, 태안 기업도시, 서산바이오웰빙특구, 대천해수욕장 머드랜드, 원산도 등 관광섬, 안면도 국제관광지, 국제 해양스포츠제전, 서해수중유물보관동 등이 계획되었다.

마지막으로 제5차 충남권관광개발계획(2012)으로 범위는 충청남도 전역(1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목표연도는 2016년이다. 제5차 충남권관광개발계획에서는 관광권역을 5개 소권역(역사온천 관광권, 내포문화 관광권, 해양도서 관광권, 백제금강 관광권, 녹색유교 관광권)으로 설정하였고 해양관광이 있는 권역은 해양도서 관광권과 내포문화 관광권 일부 사업이다. 해양도서 관광권은 보령, 태안, 서천 지역으로 기본 방향은 충남관광거점 조성과 연계자원의 개발, 해양과 해안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화, 태안~보령~서천을 연계하는 관광상품 추진, 태안 다크투어리즘, 서천 생태자연자원 등이다.

〈표 1〉 충청남도 권역계획 해양관광 관련 주요 내용

구 분	계획주체 (수립년도)	계획기간	대상지역	권역수	해양관광 관련 내용	비고
충남 서해안권 종합개발 계획	충청남도 (1988)	1989 - 2001	충남서해안 지역 (3시9군)	2 (2대권 7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적 관광지 조성(안면도, 천수만 지역) 국제 관광항 개발 해상관광망 강화 : 난지도, 안흥항 관광지 지정(도비도, 원산도) 	
충청남도 권역별 개발계획	충청남도 (1989)	1990 - 2011	충남 전지역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개발 관광지별 관광상품 개발 관광개발 : 안면도, 삼교호 국민관광지, 대난지도, 서산AB지구 서해관광도로 개발 대천종합관광단지 및 연계관광지 개발(대천해수욕장-죽도-무창포해수욕장) 춘장대해수욕장 개발 	최초 권역 계획
충남해안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문화체육 관광부 (2006)	2008 - 2017	4개 도 20개 시·군	충남 7개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사업 : 안면도, 원산도, 대천의 파인코스트 사업 연계사업 : 삼교호관광지, 만리포해수욕장, 남당지구, 춘장대해수욕장 전략사업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 계획	충청남도 (2008)	2008 - 2020	충남 전지역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해안 국제해양관광벨트-천수만 관광휴양벨트, 태안 기업도시, 서산바이오웰빙특구, 대천해수욕장 머드랜드, 원산도 등 관광섬, 안면도 국제관광지, 국제 해양스포츠제전, 서해수중유물보관동 	충남 최상위 계획
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 계획	충청남도 (2012)	2012- 2016	충남 전지역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관광지 정비·보완계획-안면도 관광지(꽃지구, 지포관광지 분리) 신규 관광지 개발계획-원산도관광지 관광소권별 핵심 관광지원 개발사업-태양광에너지단지, 세브이일랜드창조관광 활성화사업, 유부도 동아시아 철새생태지구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벨트 조성-태안관광레저기업도시, 창리관광지, 철새도래지, 서산바이오웰빙관광특구, 간월도관광지, 남당관광지, 어사궁리·개발촉진지구, 조류탐사관, 속동전망대, 죽도생태공원화, 안면도 자연휴양림, 정다리 갯벌체험, 영목항 원산도관광지, 대천항 효도해수욕장, 천북 굴단지, 안면도국제관광지 조성(꽃지, 지포지구), 청포대·수중공원, 태안국립공원, 대천관광지, 머드체험관, 죽도관광지, 무창포 해수욕장 	관광 관련 법정 계획

관련 사업 검토 요약 및 과제

충청남도 해양관광 관련 계획과 사업 검토의 결과 첫째, 서해안 해양관광 관련 계획은 최초로 서해안권 종합개발계획(1988) 수립 이후, 현재까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지 조성과 지정관광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 대규모 관광지 조성사업 위주로 개발 계획이 세워져 있어 추진 상황이 미약하며, 특히 민자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대규모 관광지 조성 추진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

셋째, 계획내용상 방향성이 되는 환황해권 시대 도래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개발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충남 서해안 해양관광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휴양형, 자연감상형, 갯벌 및 철새 생태체험 등으로 정적인 관광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즉, 현대의 해양레저관광 부문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관광지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넷째, 충남 서해안 해양관광은 지점 관광지 개발 위주의 추진으로 주변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거점관광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변과의 네트워크가 이뤄지지 않고 관광지별로 차별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한 과제는 첫째, 해양수산부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등 국정과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중앙정부와의 정합성 유지, 둘째, 서해안 해양 관광지를 벨트로 형성하고 그 효과를 내륙으로 파급시켜 내륙과의 동반성장을 지향하는 거점 해양관광지 개발과 주변 연계 발전 방향 모색, 셋째, 지역민에 의한 순차적인 해양관광 개발과 기존 관광지를 활용한 리모델링과 프로그램 추가의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개발 구축, 넷째, 해양관광지 기능 복합화와 주변 관광지와의연계를 통한 기능 다양화의 계절적 편중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다섯째,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 추진으로 투자효율성 통합적인 사업추진체계 마련의 구축과 운영이다.

전략별 주요정책 및 추진 방안

충남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별 주요정책 및 추진 방안으로 먼저 천수만 거점관광지대 및 관광지구 조성으로 부남호지구는 기존의 태안관광테저형 기업도시, 서산웰빙특구, 창리관광지의 차질없는 개발과 건강문화마을, 귀농자마을, 승마, 해양레저, 항공레저, 건강문화마을, 워터프런트 등의 추가를 제안하며, 간월호 지구는 기존 간월도 관광지, 갈산지구, 지산지구의 추진과 해산물 채취 체험장, 조류야생박물관 등의 추가 사업을 추진하고, 천수만 동측 지구는 기존의 남당관광지, 궁리·아사지구, 천북지구, 학성리지구의 지역주민연계 개발과 수산물관광식품 거점단지의 추가사업을 추진하고, 천수만 서측지구는 영목항지구, 누동리지구, 중장리지구, 창기리지구, 황도지구의 추진과 전통 바다낚시체험장의 사업

추진을 안면도 꽃지지구와 지포지구의 경우 추진 방식의 변경과 중국 자본 등 적극적인 외자 유치 등의 마련과 연육교 연결에 따른 원산도지구의 경우 해양테저관광의 메카로 해양테저체험 및 교육시설과 복합리조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제시된 사업의 추진방안으로 관광거점 지역과 지역간 연계, 민관 협력적 사업추진과 행정적 지원방안 마련, 단위 관광지 개발사업 순환형 관광벨트 구축,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등이 필요하다.

두 번째 전략으로 생태·해양·역사문화 관광벨트와 명소 육성으로 먼저 천수만·비인만 생태체험 관광벨트화와 삼고호 지역 해양체험 관광벨트화, 내포문화지역 역사문화자원 관광벨트화를 제안한다.

세 번째 전략으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수용태세 구축으로 중국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 체류형 숙박시설 구축, 외국인 관광거리 조성, 관광안내서비스 개선사업, 관광음식점 선진화, 외국인대상 쇼핑시설 및 재래시장 육성, 홍보 프로모션 전개와 외국인 선호 관광상품 제공을 제안하고 해양주제 국제 이벤트 발굴 및 육성으로 중국 대상 축제 개발, 해양자원 축제 개발, 국제적 행사 개최를 제안하며,

네 번째 전략으로 지역 내부역량과 내발적 사업 추진체계 강화로 먼저 지역기반 관광사업체 서비스 산업화를 위해 특산물 관광상품화, 음식관광 활성화, 녹색어촌체험마을 활성화와 지역관광산업의 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서비스 교육 확대와 서해안 해양관광 거버넌스 구축 운영을 위한 관광발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결론

충남 서해안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개발되고 있는 해양관광지를 거점화하고 네트워크로 연계하여 개발하자는 것인데, 관광지 개발이 단계별 추진체계·지원제도·재원확보 방안 등의 과제가 상호 연계되어 있는 것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문제·과제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광지 개발의 특성상 민간부분에서의 개발이 주가 되는 부분으로 공공 차원에서의 지원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충남 서해안 해양관광지의 경우 과거 해수욕장과 수산물 시식의 단순한 관광 형태에서 다양한 해양관광지 개발로 변해가는 과정으로서 실제화될 때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별 시설개발 계획의 추진과 장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